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가 토론토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 미주합동총회·해외합동총회 교단 통합

### 복음전파 사명에 헌신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해외합동총회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20여 년 전 3개 교단으로 분열된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 노력을 기울여온 이 교단은 18일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예수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제 35회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결실을 얻었다.

이 교단의 뿌리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미주대회다. 그러다 합동총회가 1996년 미주대회를 행정적으로 독립시키면서 이 대회는 미주합동총회, 합동미주총회, 해외합동총회 등 3개로 분열됐다. 4년 전, 미주합동총회와 합동미주총회는 미주합동총회란 이름으로 극적 통합됐지만, 해외합동총회는 2년 전,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해 조환 목사 측과 이응주 목사 측으로 또다시 분열됐다. 이번에 미주합동총회와 통합하게 되는 해외합동총회는 조환 목사 측이다. 이응주 목사 측의 현 총회장은 조도식 목사로 이 교단은 13~16일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에서 총회를 연 바 있다.

이번 통합 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최순길 목사는 “미주 합동인들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자리”라고 설명한 후 “이번 총회를 통해 과거에 하나였던 미주대회의 5분의 4가 다시 하나로 복구된 셈”이라고 밝혔다.



최순길 총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양측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대서명 아래 큰 불협화음 없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주합동총회는 5개 노회에 140여 교회, 해외합동총회는 13개 노회에 40개 교회가 있으며 미주합동총회는 대다수 교회가 미국 내에, 해외합동총회는 다수의 교회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태국, 러시아, 브라질,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산재해 있다. 최순길 목사는 “이번 통합으로 인해 미주합동총회는 든든한 해외 선교지를 갖게 됐고 해외합동총회는 미국 내에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회를 마친 후 총대들은 멕시코 헬 선상에서 3일에 걸쳐 목회 세미나를 했다. 강사는 베이스사이드교회 이종식 목사, 대국선교사 정승희 목사, 안디옥장로교회 지윤성 목사 등으로 각각 <목회의 전환점>, <이민 목회와 선교>, <선교 사역>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통합된 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이며 영문명은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USA다. 김준형 기자

## KAPC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

### 총회장에 정관일 목사, 부총회장에 김영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38회 총회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막16:15)”이란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공항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목사 총대 226명과 장로 총대 16명 등 총 242명이 등록된 가운데 열린 총회 개회예배에서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설교를 했다. 정 목사는 “지난해 총회에서 오점의 역사를 남기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며 “이번 총회에 많은 총대들이 참가

한 것은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다. 앞으로 총회가 나아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성찬예식은 김성일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이 교단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던 예장합동총회에서는 서기 김영남 목사와 회록서기 최우식 목사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안명환 총회장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총회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WKPC는 지난 37회 총회에서 이운영 총회장을 중심

으로 분리된 교단이다.

이어 열린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에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가 관례대로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중남미노회), 서기 최동진 목사(남가주노회), 부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턴노회), 회록서기 김성득 목사(중부노회), 부회록서기 양수철 목사(가주노회), 회계 김용생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민재기 장로(뉴욕남노회) 등이 각각 선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 출생증명서 변경법

### AB1951 캘리포니아 하원 압도적 통과 후 상원으로

캘리포니아 주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B1951이 최근 하원을 51대 13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갔다.

이 법을 발의한 지미 고메즈 의원은 “현 출생증명서는 어린이의 부모를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며 때론 정확하지 않다. 이는 현대 가정의 현실

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을 해설하면, 현대 가정은 동성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인데 출생증명서에는 오로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만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혼란과 부정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 후 부모는 자신을 아버지(father)라고 쓸 수도 있고 어머니(mother)라고 쓸 수도 있

으며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부모 중 한 명(parent)이라고 쓸 수도 있다. 즉, 시험관 아기를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는 자신들을 어머니와 어머니라 쓸 수 있으며, 심지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쓸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라면 남성이 어머니, 여성이 아버지라고 쓸 수도 있다.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모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부모로 규정하는 전통적 가정상을 부정하는 움직임

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다. 캘리포니아 내 LA카운티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어린이의 아버지(Father of Child), 어린이의 어머니(Mother of Child)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버지 혹은 부모 중 한 명(Father/Parent), 어머니 혹은 부모 중 한 명(Mother/Parent)로 기재란이 변경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반기독교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낙태단체인 플랜드퍼어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 of California)와 다양한 성소수자 그룹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퍼시픽저스티스 인스티튜트(Pacific Justice Institute) 등 기독교 범주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이 단체는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은 우리 주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게 할 뿐이며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인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WKPC 총회 “진리 수호와 창조성…” 주제로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제 38회 총회가 “진리 수호와 창조성”으로 전진하는 교회”란 주제로 20일부터 22일까지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렸다.

이 교단은 지난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차 총회에서 이운영 총회장을 중심으로 분리된 단체다. KAPC는 분열 이후, 엄영민 총회장 측과 이운영 총회장 측으로 대립하며 KAPC라는 이름의 소유권을

서로 주장했으나 지난 4월 말, LA슈피리어코트는 가처분을 통해 교단의 명칭 사용권과 합법적 총회장 직위에 대해 엄영민 총회장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바 있다. 이에 이운영 총회장 측은 교단명을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로 변경하고 총회를 연 것이다.

20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개회예배에서 이운영 총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설교는 “진리 보수와 창조성으로 전진하는 교회”(갈1:6-10)란 제목으로

강득영 부총회장이 했다. 성찬예식은 손경호 목사(북가주동노회장)의 집례와 설교로 시작돼, 오영종 목사(서가주서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회무처리 및 임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장에 강득영 목사(제임스타운 한인장로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김대식 장로 등이 별 다른 투표 없이 공천부의 추천을 받아 총회 자리에서 인준됐다. 강득영 신임총회장은 “성실하게 총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이 교단은 20개 노회에 목사 총대 288명, 장로 총대 44명이 있지만 이번 총회 개최 후 첫날 회무처리 당시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총회에는 예정 합동총회 안명환 총회장 등도 내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합동총회의 다른 임원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같은 기간 동안 열리고 있는 KAPC 총회에도 참석한 상황이었다. 토마스 맹 기자



솔로몬대학교가 제12회 졸업식을 거행, 5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 솔로몬대학교 제12회 졸업식 거행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의 제 12회 졸업식이 17일(토) 오후 2시에 대학교 채플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학사 1명, 석사 2명, 박사 2명 등 총 5명이 졸업했으며, 김흥기 박사의 사회, 지용덕 목사의 설교, 백지영 총장의 메시지, 김철수 박사·이태한 박사의 축사, 학위수여식, 정해진 박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한 목자”(요10:11-16)란 제목으로 설교한 지용덕 목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면서 “주님의 사역자들도 주님의 심성을 닮아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길 축원한다”고 밝혔다.

백지영 총장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대학교의 문을 닫지 않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 고백하고 싶다”며 “앞으로 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 Alliance) 산하 신학교인 솔로몬대학교는 1991년 백지영 박사에 의해 사립종교대학으로 설립, 신학대학 중심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 2010년 2월 일반종합대학교로 승격됐다.

☎문의: 213-381-7755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원로목사회 “하나님의 뜻대로”



원로목회자들이 성광장로교회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개최, 이 교회 이상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이태한 목사)가 5월 정기모임을 성광장로교회(이상훈 목사)에서 15일 오전 11시에 열었다. 1부 예배는 사회 이태한 목사, 기도 신원철 목사, 성경봉독 박도재 목사, 설교 이상훈 목사, 헌금기도 노재룡 목사, 합심기도 조영제 목사, 축도 최찬영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살전 5:16-

18)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상훈 목사는 “이제 선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해야 한다”며 “지난 4월 말에 인구의 99.99%가 무슬림인 터키에서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터키에서는 4월 23일에 무슬림들이 교회에 와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는데, 터키 앞바다 부근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교회에 무려 8만여 명의 무슬림들이 마치 개미떼 같이 기도를 받으려 와, 나도

사제복을 입고 기도를 해 주었다. 그때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원로목사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했다.

2부 친교시간에서는 생일축하 시간과 미주기독교방송국 남철우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토마스 맹 기자

## 예정 해외합동 여성목사 안수 결의




총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정 해외합동(총회장 조도식 목사) 제36회 총회가 4개 대외 31개 노회 1백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16일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에서 개최돼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 여성목사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안수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태국 총회에서 갈라진 해외합동 총회를 통합하기 위해 힘을 쏟기로 하고 정회함으로써, 현 임원이 그대로 유임됐다.

한편, 지난 회기에 이어 총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 조도식 목사는 “해외합동 총회 통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천능 충만

임복만 목사 초청 춘계 말씀 축제

주제 : 회복과 부흥 and 오직 성령으로



**임복만 목사 (청주 원돌교회 담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역임  
감리교 전국부흥단 전임담당 역임  
미국 코헨대학 국제(79개국)부총장  
C.U.T.S 한국학술원장  
현 청주원돌교회 개척담임

하가님의 귀한 말씀 축제에 너무나 귀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임복만 목사님과 함께 만나시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25일(주일) 오전 11시 겐 37:7~10  
"오직 성령으로"

26일(월) 오후 7시 30분 고전 1:10~17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7일(화) 오후 7시 30분 고전 12:4~11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8일(수) 오후 7시 30분 골 3:23  
"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해위한인장로회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신권 Rev. Paul S. Kang, Th.D., Ph.D.  
World Bible Presbyterian Church 17002 Prairie Avenue, Torrance, CA 90504

T. (424) 257 - 8169 C.P (562) 761 - 5242  
www.wbpc usa.com . drpaulkang@hotmail.com



LA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립학교인 NCA가 졸업생 41명을 배출했다.

### 차세대 리더 양성하는 기독교학교

### 새언약학교(NCA) 제11회 졸업식

LA에서 14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가 2014년 제11회 졸업식을 15일 저녁 교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5명, 중학생 17명, 초등학교생 12명이 졸업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지난 14년 간 학교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싶다”며 “지난해 8월에 지금의 캠퍼스를 매입하고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사역의 뿌리를 내리게 돼 감격스럽다. 명실공히 미주 이민 역사상 한인이 설립한 첫 기독교 학교로서 이제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앙과 실력, 그리고 인격을 갖춘 차세대 기독교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은 웨스트포인트를 비롯해 UC버클리, USC, UCSD, NYU, 페퍼다인대학교, 보스턴유니버시티, 옥스퍼드칼리지, 스톨오브야츠 인스티튜트오브시카고, 로드아일랜드 스쿨오브디자인, 바이올라대학교 등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비 보조가 아닌 장학금만 총 210만 달러를 받았다.

이날 스티븐 채 학생은 학교로부터 10년 봉사상을 받았다.

WASC 정식 인준학교이며 IB(국제 공통 대학 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NCA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다.

문의 :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토마스 멩 기자



은혜한인교회가 지난 18일 창립 32주년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 은혜한인교회 32주년 “뽕뽕같이 믿음의 동역자 되자”

#### 목동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 초청 부흥회 및 임직식 개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목동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를 초청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로 창립 32주년 기념 부흥회 및 임직식을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특별새벽집회에는 미 우주항공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스티브 모리슨 장로가 본인의 입양 스토리를 통해 불우한 한 아이의 삶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간증으로 전해 큰 감동을 주었다.

조봉희 목사는 18일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교회, 모두가 일꾼인 교회, 모두가 성령충만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주님의 손과 능력이 역사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자들이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은하수와 같은 동역자들은 목회 후원자”라며 “바

울이 그 시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로마에 갈 수 없었지만, 편지를 쓰게 되면서 로마서가 나오게 됐다. 영광의 복음이자 모든 신학자들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으로 뽑는 로마서를 필박의 땅인 로마에 누가 전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젊은 집사 뽕뽕이 자청했다. 서신을 갖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천 리 길을 간 것이 뽕뽕의 위대함”이라고 했다.

조 목사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이 뽕뽕과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함께 고생하고 매 맞고 기도하고 울고 감옥에 갇히는 등 생사고락의 동역자이자 동지들이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랑도 바울의 목회에 동역했다”며 “은혜한인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랑스런 동역자를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6-7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교회를 결

코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의 동지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인데, 모두 동역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임직식에서는 원용경, 신장섭, 신창수 안수집사 등 3명이 장로 장립을 받아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3명의 장로 장립을 위시해 안수집사 14명, 권사 23명, 그리고 서리집사 138명이 임직을 받았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 동안 은혜한인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늘 배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무릎꿇고 전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멩 기자

### 죽산 박형룡 연구원 특별세미나

한국 보수신학의 거인, 박형룡 박사를 기리는 특별 신학 세미나가 <죽산 박형룡 박사 연구원> 주최로 아메리칸대학교 신학대학원(1829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은 목회자 및 신학생, 평신도 등이며 등록비는 무료다. 세미나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신상원 목사, 진석호 목사, 맹용길 박사, 남정숙 박사, 김혜성 박사 등이 요한복음, 시편119편 설교, 영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전한다. 이번 특별 세미나 기간동안 수강



죽산박형룡연구원장, 아메리칸대학교 총장인 김혜성 박사

치한 영성장교회회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한다.

문의 : 323-732-7356

하는 모든 학점은 아메리칸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강 전에 학교 측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 학교는 5월 31일 오후 3시에 학교 건물이 위치한 영성장교회회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한다.



한기홍 담임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창립 32주년을 감사드리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전화: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 서부인삼부담 T.213.453.6624 (마리팅마켓일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지평을 넓혀 갑니다

**2014년 여름계절학기 강의시간표**

과목명	담당교수	시간	기간
B.A. & M.Div.	미주 2세 교육철학	현용수	주간 5월 26일 (월) ~ 30일 (금)
	고델 (GOEL) 포럼	9명의 강사들	주간 6월 9일 (월) ~ 12일 (목)
B.A.	기독교윤리학	강우중	주간 6월 9일 (월) ~ 13일 (금)
	동양철학개론	규경모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한국교회의 신학사상사	박정환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에스겔, 비전과 현실사에 신 선지자	김수정	야간 6월 16일 (월) ~ 27일 (금)
M.Div.	구원론과 종말론	김상구	주간 6월 23일 (월) ~ 27일 (금)
	산구약 중간사	이상명	주간 6월 30일 (월) ~ 7월 3일 (목), 7일 (일)
	히브리서 신학	TBA (추후공지)	야간 7월 7일 (월) ~ 18일 (금)
	세계사회의 역사	김신	야간 7월 21일 (월) ~ 8월 1일 (금)

강의시간: (1) 주간반 (1주2차) - 9:00 A.M. ~ 5:00 P.M. (2) 야간반 (2주2차) - 7:30 P.M. ~ 11:00 P.M.

미주 2세 교육철학 과 '고델포럼'은 일반인 무료 참석가능.

\*고델 (GOEL) 포럼 강사진: 고순희 (아름다운교회담임), 민종기 (송현신학교교과위원장), 정진영 (TEDS), 김지현 (홍신대), 박신홍 (TRINITY INT'L UNIV.), 이필환 (홍신대), 김형균 (멜로디교회담임), 본교교수 (이상명, 조진성, 김수정)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Adam Jung 모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B.A. 과정 재학생

**2014년 여름계절학기 기율학기 신입생 모집**

**01 pts**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여름계절학기 개강일: 2014년 5월 26일  
기율학기 개강일: 2014년 8월 25일

**02 pts**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여름학기 개강일: 2014년 5월 19일  
기율학기 개강일: 2014년 9월 8일

**03 pts** 2014년 기율학기 야간 강의 -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설  
2014년 여름계절학기 기율학기 - 온라인강의 수강 가능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단기선교팀이 선교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5개 나라의 각 지역으로 선교사역을 떠나기 전에 한자리에 모였다.

# 월드미션프론티어 2014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모집

## 전도 중심으로 사역한 후 병원선 진수식 참여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욱 선교사)가 2014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을 모집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활동하는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은 우간다,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에서 전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5-6명으로 조직되는 단기선교팀은 4개의 팀으로 나누어져서 아프리카 5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1팀은 우간다-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팀은 르완다-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3팀은 콩고-부룬디-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20일, 7월 21일부터 8월 3일), 4팀은 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5일부터 8월 3일)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단기선교단은 <사랑의 가족 나누기 사업>으로 사랑의 젓소와 돼지 나누기를 통해 복음화된 마을들이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돕는 사역도 추진한다. 단기선교단원들은 각자가 교회를 통해 사랑의 가족 기금을 마련하여 현지에서 직접 전달하게 된다.

2014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은 오는 8월 2일에 탄자니아 무완자에서 거행되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진수식에 참가한다. 월드미션프론티어에서는 빅토리아 호수의 1천 개의 섬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위해 의료선박을 제작 중에 있는데 오는 8월 2일 진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진수식에는 탄자니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관계자(150명), 탄자니아 교계지도자(80명), 월드미션프론티어 5개국 스태프(50명), 한국인 성도

(100명), 언론인(20명) 등 400여 명의 내빈이 초청된다. 탄자니아 무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링게티 국립공원이 가까워서 국립공원 사파리 관광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994년 르완다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프론티어는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선교단원을 모집하여 아프리카 5개국 복음화 대회를 추진한다.

그동안 1,200여 명의 단기선교단원이 동원되었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150만 명이 참가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4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의 모집은 6월 말까지이며 항공료(2700달러), 현지 사역비(1천 달러), 비자(2백 달러) 등의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전화 408-345-1727 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래 기자

## ‘복음주의자’ 는 많은데 ‘복음’ 전하지 않아

### 남침례회, 1년 내내 세례 없는 교회 25%

최근 미국 남침례회가 밀레니얼 세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침례회는 로마 가톨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단이다.

공개된 보고서인 ‘남침례회의 복음적 영향력과 세례 감소에 대한 목회자 태스크포스’(Pastors’ Task Force on SBC Evangelistic Impact & Declining Baptisms)에 의하면, 2012년 남침례교회 가운데 25%에는 새 신자 세례가 없었다. 18~34세인 밀레니얼을 끌어들이기 위한 교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80%의 교회에서 18~29세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례도 한 번 또는 아예 없는 수준이었다.

남침례회와 연계된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에드 스테처(Ed Stetzer) 대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이들에게 충분하게 조정을 맞추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미선교이사회 알 길버트(Al Gilbert) 전도부회장이 이끄는 팀에 소속돼 있는 그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복음주의자(Evangelicals)들은 전도(evangelism)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만 함께 전도한다. 늘어나고 있는 사역 현장에 닿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도에 대한 열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교인 수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먼저 “목회자가 매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벅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서 꾸준한 개인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 사역, 전도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는 데 충분한 관심이 없었던 교인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사역자들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개인적 오도 전도를 하거나 제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회 문화 ▲이를 통해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함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함 ▲세례를 더욱 장려함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강혜진 기자

## 백배축복선교회 정재를 목사, 한우리장로교회에서 부흥회

한우리장로교회(담임 강지원 목사)에서 정재를 목사(동변제일교회) 초청 부흥성회가 “백배 축복의 성경적 원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정 목사는 대신대학교 신학대에 이어 영남대학교, 총신대학교를 졸업,

18년째 지역 병원의 원목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백배축복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또 기독교상담사, 가정상담사, 웃음치료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 100개 교회 건축을 꿈꾸며 현재까지 33

개를 건축했다. 이번 집회는 5월 23일, 24일 오후 7시 30분,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각각 열린다.

문의 : 323-702-6709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토마스 맹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하,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신앙정절과 두아디라 교회

## 요한계시록 2:18-2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2: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꺾기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자주 장사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

바가모 교회에서 동북쪽으로 180리 정도 가면 두아디라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도 옛날처럼 구리를 많이 캐내어 여러 가지 생활 기구를 만들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웃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무역과 산업, 그리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친정 고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인 항구 도시가 빌립보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가서 물들인 웃감을 구해 행상을 하던 여인이데,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공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두아디라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정통 교리적 신앙에 바로 서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만든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환란과 행패,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가혹한 연단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신 일이 없고 어떤 행패와 고통을 당하셔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사업을 그 서두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을,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내세소망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육신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첫째 목적이었던 것과 이들의 사랑은 진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일로 구리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과 웃감을 물들여 파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진리에 입각한 정통 교리적 신앙이 바로서지 못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우선이었고 섬김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통한 신앙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인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 이단은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의 지도급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도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입각하여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정절과 주대를 지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37절 사이에 이세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바알(풍요의 신)과 아세라(다산의 신)라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궁 안에 신상을 놓고는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숫자는 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긴 가뭄을 경험해야 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기도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

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합왕 때의 이세벨이 했던 역할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이단을 끌고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 이단을 추종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이 여자와 육체적으로 음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환란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의 씨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뿐 아니라 최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

다. 28절의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 교회는 정통한 믿음의 교리와 사랑이 잘 균형 잡혀야 하는 것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와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를 감싸주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회개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서 받은 은혜가 감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 분위기를 힘쓰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진리 정통한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다보니 그들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것들 즉 정통한 믿음의 교리와 사랑이 잘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리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 믿어지는 믿음이 확실한 바탕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교회의 올바른 성장 모습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넛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작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ole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사학사학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종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Good News**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We are fully accredited by ATS and a member of GTU.  
absw.edu (Established 1871)

**Doctor of Ministry Program**  
목회 학 박사 과정 학생 모집  
Los Angeles 에서 6월 16일 개강 (장학금 지급)  
We will have two seminars (3 Units each, Monday - Friday):  
June 16th through 20th, 2014: Church Growth  
Professor: Dr. Hyo shick Pai (9:00 am - 5:00 pm)

June 23rd through June 27th, 2014: Leadership in Urban Ministry  
Professor: Dr. Youngil Kim (9:00 - 5:00 pm)

Location: The First Baptist Church (Los Angels Extension Campus)  
760 S. Westmoreland Ave. L. A. CA 90006  
<좋은 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 \$1,000불 지급>

**Contact Persons**  
Dr. Hyo Shick Pai, Administrator (분교장)  
(661) 755-5442 drhyopai@gmail.com

Visiting Professors for Church Growth Seminar  
Dr. Chunil Cho  
Dr. David Bang

Dr. Paul Martin: President  
Main Campus: 2606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Approved by Dr. LeAnn Flesher, Dean and Dr. Sam Park, Director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네바다 주 리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리노영락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회자를 청빙 합니다.

#### I. 지원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회자로서 해외 한인 장로회(KPCA)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3년 이상 목회 경험과 2세 교육에 사명감과 VISION을 가진 분.
-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II.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 2) 본인 소개와 신앙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일반 대학 졸업 증명서(optional)
- 5) 추천서 : 목사 2명 및 장로 2명
- 6)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개

#### III. 제출 마감일 : 2014년 5월 23일

#### IV. 제출처

서류제출처 : Eld. Seung B. Park(청빙위원장) 120 Continental Drive Reno, NV 89509  
교회주소(참고) : RENO YOUNG NAK CHURCH  
3102 Skye Terrace Sparks, NV 89431  
Email: sbparknv@yahoo.com

#### V.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치 않음.
- 2)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서류 마감일자 후 10일 안에 서류심사 를 통과 한분들에게 E-Mail로 연락 드림.
- 4) 전화 문의는 사절함.
- 5) 서류제출은 Certified Mail로 보내주시고 E-Mail로 확인 해주시길바람.

### 리노 영락 교회 목회자 청빙 위원회

###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황홀함은 세상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백일잔치에서 아빠의 손가락을 붙들고 뺨히 쳐다보는 그 눈동자는, 모든 아버지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삶의 축이 아이에게로 옮겨 갑니다. 삶의 공간도 아이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생활비도 아이의 몫이 더 큽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겨우 10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데 사회적, 정서적 무게는 수백 파운드가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짐을 넉넉히 짊어집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말은 조금함을 버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대소변 가릴 날을 기다리고 의사소통이 될 날을 기다리는 일이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의 기둥에 자기네 키를 연필로 표시해 놓지만, 부모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그 날이 그 전 날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가 꾸는 꿈은 그 크기를 가

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부모는 아이가 그 길로 자라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아이를 갖기 전에는 다 위대한 교사요, 사상가요, 철학자요,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는 함부로 남을 흥분시킬 수 없고, 함부로 자기자랑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다른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겸손함을, 내 자녀들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 되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너그러움을 가르칩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는 너그러움, 귀찮게 하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너그러움, 돌아오는 것 없어도 섭섭하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는 너그러움, 그리고 가끔 자기들이 오히려 부모 노릇하려고 덤벼드는 그 황당함을 대견스럽게 여기는 너그러움, 그래서 부모들은 그 마지막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을 때문에.....

### 친절과 축복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서울에 갔을 때 손님으로 복새통을 이루는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음식맛이 특별하거나 값이 싼 것이 아님에도 손님들로 대 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고보니 간단했습니다. 그 음식점의 최대 무기는 '친절'이었던 것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손님은 왕'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남자 화장실에는 'KING', 여자화장실에는 'QUEEN'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을 위해 세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식당측의 친절에 감동해 단골고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본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결국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인간관계가 결국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원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친절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아름답게 사는 '가이오'에 대하여 격려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디오드레베'의 불친절한 태도를 '악한 것'으로 정의하

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기 좋아했던 다윗의 삶의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친절한 삶은 형통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삭은 특징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의 생을 잘 살펴보면 친절을 표현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겨도, 대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시 우물을 판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의 인생철학인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이 항상 풍성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인생이 누리 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뉴욕 맨해튼의 최고 호텔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사장이었던 '조지 볼트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

는 어느날 밤, 운전하며 조그만 마을에 도착한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 부부는 목을 곳을 찾아 작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당일 그 호텔 사무원이었던 조지 볼트로는 겸손한 태도로 방이 다 찼다는 말과 함께 그 마을의 모든 호텔이 만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덧붙여서 "이 빗속에 그냥 돌려 보낼 수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이라도 묵고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도 처음엔 사양했지만 조지 볼트로의 친절에 감동받아 하룻밤을 잘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산을 하면서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조지 볼트로는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의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는 맨해튼 중심가로 조지 볼트로를 데리고 간 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관리를 맡길 호텔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특급호텔인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는 그 호텔의 소유주였던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축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친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선교회

세상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명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해마다 4만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면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죽는 수가 더 많고 살해당하는 사람도 연 16,0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의료사고다. 1999년에 98,000여 명이 죽었고 십년 후인 2010년 통계에는 21만여 명에서 44만여 명으로, 발표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다른 나라는 그 수를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번 한국의 세월호 참사도 선장 이하 선원들의 무책임과 사기꾼 선주, 뇌물고리에 연결된 감독기관들, 미숙한 대처 방법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이 어찌하여 이런 총체적인 죽음의 병에 걸렸을까! 대부분의 참상들은 인재이며 그 원인은 사명감이나 책임 의식 없이 자기만 잘 살려서이기 때문이다. 내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남들을 섬기겠다는 정신이나 헌신이 희미해지다 못해 없어지는데 큰 문제가 있다. 마치 벌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차차 줄어들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기 혼자, 아니면 자기 가족만 잘 살려서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주위에는 거미처럼 잘 안 보이는 곳에 줄을 쳐 놓고 숨어서 먹을 것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더욱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준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황폐하게 한 괴물인 히틀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는가 하면,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였고 전국을 잿더미로 만든 김일성을 태양 같은 신으로 추앙하며 그시체를 영원히 보관하느라 수억 원의 돈을 해마다 들이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죽음의 역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착하고 선한 둘째 아들 아벨은 질투심이 강한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진행중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실 분은 없을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보고를 드린다. "우리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누구의 죄로 인해 생겼습니까?"였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는 "얼마 전에 실로암의 땅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역시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다"고 하셨다. 즉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다.

한국의 성자라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국의 대형사고가 난 다음 주일 설교 중에 "사회가 부패하고 특히 종교가 타락해서 사회의 대대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형사고가 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은 뛰어난 예언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는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sup>®</sup>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sup>®</sup>**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페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b>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b>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b>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b>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b>박옥현(77세) 213-500-4471</b>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b>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b>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b>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b>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b>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b>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b>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6개월 후 완치 되었음. <b>한국 010-7928-7986</b>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b>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b>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집안직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b>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b>
심한 알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b>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b>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b>마사루(58세, 부산)</b>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b>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b>민현자(65세, 방배동)</b>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b>박성섭(63세, CA 토렌스)</b>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소변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소변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b>정대진(16세, 엘에이)</b>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옴. <b>피터 리(65세, 엘에이)</b>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b>이정수(51세, 서울)</b>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b>미세스 팩(뉴저지)</b>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b>이은영(32세, 세리토스)</b>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b>장영순(53세, 한국 서울)</b>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b>김정희(76세, 한국 대구)</b>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b>조인숙(53세, 시카고)</b>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갔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b>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b>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b>필립 남(72세, 벨리)</b>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b>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b>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b>최정석(50세, 엘에이)</b>

## 건강과 성경이야기 6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가요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왕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몇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 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느보산은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미터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키로미터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 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열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

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버가 맹세로 백성에게 말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풀을 찌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가 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상태를 첫번째로 깨닫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데 M3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말)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본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머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조지아 (Power Mill)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714.636.2588
LA내셔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셔널영양센터	714.690.0120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기하성 여의도 이영훈 총회장 “서대문측과 하나되자”

## 제63차 정기총회 개최예배 설교서 역설



기하성(여의도) 총회에서는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 제63차 정기총회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오직 성령으로’를 주제로 개최했다.

개회예배는 이태근 목사(제1부총회장)의 사회, 박장근 장로(부총회장)의 대표기도, 이영훈 총회장의 설교, 성찬, 특별기도, 홍재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최성규(증경총회장) 목사의 축사, 엄기호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오순절 성령강림’(행 2:1-4)을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이번 회기에 논의되는 모든 안건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하고, 어떤 결정 사항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서대문 측과 하나되면 2백만 성도, 4천여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 원래 한 가족이었고 한 집안 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한국교회에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 했다.

앞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한 조용기 목사(총재)는 “그동안 민족사의 등대요 세계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온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단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아울러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모두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사한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기하성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님을 탄생시킨 교단”이라며 “조 목사의 훌륭한 영적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기도하는 총대 여러분들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개회예배 후 총회는 회무처리에 들어가 교단 내 주요 업무를 처리한 후 정회했다. 총회는 20일 다시 개회해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김진영 기자

# WEC 선교 2세기

## ‘현장 밀착성’과 ‘유연성’ 높인다

### 2014 WEC 국제 지도자 회의

올해로 설립 101주년을 맞은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국제선교회가 19~30일 한국의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2014 WEC 국제지도자회의(인터콘, INTERCON 2014)’를 열고 있다. WEC은 ‘미전도종족 복음화’, ‘교회 개척’, ‘선교 동원’이라는 자신들의 사역 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현장 밀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콘은 4년마다 개최되는 WEC 국제선교회의 연합전략회의로, WEC의 국제 지도자들과 각 선교지 주요 지도자 등 약 200여명이 모여 공동체의 전체적인 방향과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한다.

선교 2세기 들어 처음 열리는 WEC의 이번 회의는 과거에 피선교지였지만 이제는 선교사 파송국인 한국에서 열리며, 선교사 파송국 가운데서는 최초로 비서구권에서 열리는 뜻깊은 대회다.

WEC의 루이스 서튼(Louis Sutton) 국제 총재, 허만 스프롱크(Herman Spronk) 동아시아 태평양 권역 대표, 박경남 한국본부 대표는 개회에 앞서 19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17일 40여명의 국제지도자들이 모여 진행한 국제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주요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WEC의 역사와 향후 전망 및 현 선교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다.

국제조정위원회의 주요 결정은 첫째로 ‘선교사 선발에서 영어 기준 완화’다. 그간 WEC의 선교사가 되려면 영어는 필수였지만, 이제는 선교사의 공용어를 현지 사역어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대신 그만큼 현지 언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WEC 선교사 문화 확대’다. 앞으로는 피선교지에서도 선교 헌신자가 나오면 파송국을 거치지 않고도 WEC 선교사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많은 피선교지들이 충분히 성장·발전한 만큼, 수혜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선교사를 배출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선교’의 길을 열자는 취지다.

셋째는 ‘더 간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방법 도입과 행정체계의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의사결정을 국제적·권역별·필드별 세 차례에 걸쳐 했다. 앞으로는 이를 하나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지의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좇으며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이번 인터콘 기간 동안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1, 2년 내에 실행하고, 셋째는 좀 더 세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서튼 총재는 덧붙였다.

WEC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한국교회에 조언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서튼 총재는 “믿음 선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비즈니스 선교’나 ‘전문인 선교’를 수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여러 종족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예배드리게 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난해 콩고에서 열린 100주년 행사에서 잘못을 공식 사과했고, 현지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며 “선교현장이 어려워지니 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수록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WEC 선교 2세기의 방향”이라고 했다.

스프롱크 대표는 “선교지의 일들을 파송교회가 다 결정하려 하기보다 현장에서 팀 구조를 형성해 그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프롱크 대표는 “피선교지의 의존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 선교사가 돈을 가져가서 좋은 건물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 해도, 현지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의존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 선교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해 서튼 총재는 “아직도 6천여 미전도종족이 있는데, 교회들이 한 종족씩 지정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 미전도종족 선교에 접근하고 참여하게 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스프롱크 대표는 “현지인이 선교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먼 곳이나 먼 나라에 있는 이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지역의 종족이나 민족의 경우 과거 심각한 전쟁과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로 서튼 총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멤버 케어나 2세 교육 등 새롭게 직면한 도전들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스프롱크 대표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본부에서 행정·훈련 등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모두 중요하다”며, “본부 사역을 경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 하나님의 사람이 목표라면, 오늘날 교회교육은 실패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회장 김상구 박사)가 17일 경기도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27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총장,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가 ‘한국교회의 교육,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전했다.

정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사회는 경쟁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철저하게 그 구조를 지탱하고 이끌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한다”며 “그 때문에 학교교육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인물 양성을 최대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한국의 신학교육과 교회교육도 그와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는 복음의 교사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깨우쳐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지 못하

고, 기독교인의 인간성이 이러한 가치들로 형성되도록 교육하지 못한 것”이라며 “믿음과 소망, 사랑의 실천적 가치들이 삶으로 실현되도록 하고, 성경말씀에 응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교육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성 회복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독교 교육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고 이를 위해 훈련하는 것을 그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인간성 회복에 달려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성 개선이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화평하며, 협력하고, 양보하며 봉사하는 인간성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교육’도 정 박사가 제시한 대

안 중 하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입교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역사적으로 ‘요리문답서’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아야 하며,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신앙의 근본 토대를 놓으려 했다”며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신앙의 기초교육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요리문답서는 더 이상 교재로 사용되지 않으며, 새신자의 세례문답교육과 유아세례자의 입교준비교육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정 박사는 △감성자극 위주의 예배 극복 △말씀과 기도(찬송), 성찬의 균형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의 강화 △삼십기의 정신 고취 △자녀 신학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 △신학교육의 소수정예화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또 “우리는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을 슬기롭게 뛰어넘는 신앙적인 인물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선교(10박11일) \$1,999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5월~7월 등락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음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인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경의 땅을 밟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교회의 동성애 문제 대처 방식

## “이성애자 되라” 는 부족해

### 동성애 유혹과의 씨름, 행위에 대한 방임과 구별해야



마이클 브라운 박사

“동성애자 크리스천은 가능한가: 동성애 문제에 사랑과 진리를 담아 답하다(Can You Be Gay and Christian: Responding With Love and Truth to Questions About Homosexuality)”의 저자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동성애자 크리스천에 관한 쟁점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뉴욕대에서 고대 근동어와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브라운 박사는 14일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에서 열린 강연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동성애 유혹을 받는 자를 만났을 때 강조할 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돕기 보다는 이성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중점을 뒤야 할 부분이 아니다.”

“동성애자이며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브라운 박사는 질문의 함의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답했다.

그는 “동성애 유혹을 받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끊고, 그것을 범하지 않으며 예수를 따른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성애자가 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성애자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레19:2, 벰1:16)’라 말한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반면 “동성애 크리스천”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절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 그는 “동성애 유혹을 받는 사람이 유혹과 싸우며 예수를 따를 수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인들을 향해 혹은 책을 통해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용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에 맞서 이 책을 저술한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임을 놓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의도한 바는 아니나 매튜 바인즈(Matthew Vines)의 책 “하나님과 동성애 크리스천: 동성애 지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God and the Gay Christian: The Biblical Case in Support of Same Sex Relationships)”와 같은 시기에 자신의 책이 출간된 데 대해, 그는 이같은 우연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 것이라 기대했다. 브라운 박사는 동성애 유혹과 싸우는 이들에게 크리스천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 유혹을 받은 크리스천에게 절제가 어렵지 않은지 물었을 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동성애 유혹을 받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끊고, 그것을 범하지 않으며 예수를 따른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성애자가 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성애자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레19:2, 벰1:16)’라 말한다”고 말했다.

### 종려주일처럼 신앙생활 해도 됐는데...

## 이제는 성금요일 맞이한 미국교회

미국의 교계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며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프린스턴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조지 맥코믹 박사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0회 전미 가톨릭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미국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던 시대는 끝이 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맥코믹 박사는 가톨릭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전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가톨릭을 넘어 모든 미국의 기독교 커뮤니티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던 가톨릭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제 미국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좋은 가톨릭 교인, 복음의 진리에 헌신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맥코믹 박사는 “미국 문화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친낙태, 친동성애 등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맥코믹 박사는 “세상은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면 이러한 대가들을 치르러며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의 생각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기를 바라거나, 자신들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일 없이 침묵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길들여진 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 하며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그는 말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 미국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각각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에 비유하기도 했다.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해도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 외쳤다. 그러나 성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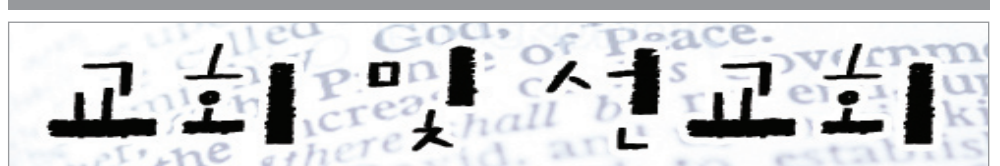
에 모든 상황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대신 ‘십자가에 달라’고 외쳐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맥코믹 박사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부인하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어머니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십자가 곁을 지키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어려운 문제”라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오늘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던 안전과 평화와 조용한 삶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할 수도,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 당할 수도, 직업을 잃을 수도, 자기 분야에서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도, 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진정한 우정을 잃을 수도, 가족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오늘날 신실한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오늘날 낙태는 여성 인권, 동성결혼은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맥코믹 박사는 “교인들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지 않고자’ 낙태나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인들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체하기 위한 세속주의의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희망 없는 시도”라며 “하나님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다. 역사는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천왕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제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천왕예배 오후 1:45 수/금요일예배 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에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출, 현재 1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가의정(모음,성경적코노미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초 정신의 흠뻑,버튼교회와 함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물리사(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미(Maturing), 맞선대(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목회, 이민2세목회, 이민3세대목회, 이민4세대목회, 이민5세대목회, 이민6세대목회, 이민7세대목회, 이민8세대목회, 이민9세대목회, 이민10세대목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인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석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수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생기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21)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애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최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오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최희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강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곽덕근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슬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여성 목회자들 2천 불 장학금 전달

### 제3회 여성 목회자의 날 맞이해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15일 할렐루아뉴욕교회에서 제3회 여성 목회자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15일 오후 6시 할렐루아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제3회 여성 목회자의 날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날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성 목회자의 날'은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여성 목회자들의 사기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 처음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제1회는 연장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2회째는 일반적인 여성 목회자들 모두 참여하는 친교 모임으로 확대됐다. 3회째를 맞는 올해는 여성 목회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장학금 2천 불을 마련했다.

이날 예배는 조상숙 목사의 사회로 김정숙 목사 대표기도, 박현숙 목사 성경봉독, 이광희 목사와 이사훈 집사의 피아노·바이올린 특별연주, 전희수 목사 설교, 권캐더린 목사 영어 설교(통역), 이미선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마25:31-46)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 말씀과 같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기준은 험벗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이라면서 "똑같은 요구 앞에서 행하는 방식이 달랐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기회를 잃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전희수 목사는 "최근 저의 사역을

돌아볼 기회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 30년, 목회인생 30년 정확히 절반의 기점을 지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주어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칭찬받는 미주한인 여성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 후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한인학생을 비롯한 다민족 학생 10명에게 각각 2백 불의 장학금이 전해졌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래 희망과 함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회원들이 함께 마련한 만찬을 했으며 2부 순서로 축시낭독, 장기자랑, 선물증정 등의 시간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다음은 장학생 명단.

1. 안성빈(10학년)
2. Park, Faith(10학년)
3. Chon, Alice(11학년)
4. Dyreek Brathwaite(12학년)
5. 안지수
6. 한애니
7. 함은비(11학년)
8. Kang, Irene(Freshman)
9. Kim, Paul(10학년)
10. Aaliyah Johnson(11학년)

김대원 기자

## 故 이성은 자매, 뉴욕주 상원 '위대한 여성상' 수상



토니 아벨라 의원(오른쪽)이 이성은 자매의 어머니 이진아 사모(왼쪽)에게 시상했다.

존엄사 논란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소천했던 이성은 자매가 뉴욕주 상원에서 주는 '위대한 여성상'을 13일 수상했다. 이날 오후 6시 올바니주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어머니인 이진아 사모가 이성은 자매 대신 참석해 2번째로 수상자로 나섰다.

이만호 목사는 "성은이의 사역을 추모하며 엘리프비센터를 세운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위대한 여성상을 받게 돼 더욱 감동적"이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날 하나같이 성은이를 생각해 주고 인사를 건네준 뉴욕주 상원들, 특히 토니 아벨라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이만호 목사는 "앞으로 성은이가 생전에 보여줬던 차세대를 기르는 어린이 인재양성 사역과 노인공경 사역들을 더욱 더 힘써서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성원해주고 기도해준 준 동포 사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자들 중 이성은 자매는 유일하게 아시아인이자 고인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 자매가 남긴 유산으로 세운 성은장학재단과 생명보험금과 장례식 조의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엘리프비센터가 현재 활발한 섬김과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상원이 특별히 이 자매의 사후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책자는 이 자매의 선행을 그가 소

김대원 기자

나의 죄와 완악함,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

제 67차 정기 기도성회, 복음 전파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것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에서 최병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워싱턴 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 제 67차 정기 기도성회가 지난 15일 시애틀 제일장로교회(담임 이인석 목사)에서 열렸다.

시애틀 제일장로교회는 53년 전 시애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 이민교회로 시애틀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인 이민사와 함께 한 이 교회에서 어느 때보다 간절히 자신의 부족함을 통회하고 자녀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워싱턴 주 각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열방과 지역사회 부흥, 교회의 연합과 불신자 전도를 위해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예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최병걸 목사(웨드필웨이 제일장로교회)는 “누구를 위해 울까?”(눅 23:27-2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최 목사는 “세상 모두가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정작 자복하고 통회해야 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며 “이 시대

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위해 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세상이 우리를 위해 축복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믿는다”며 “세상이 어렵고 부패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민교회의 차세대 빈곤 현상을 예로 들면서 “2세들이 1세들의 신앙적 모순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에 한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심각하고 고민하고 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열방을 향한 기도와 함께, 나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목 놓아 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음 세대가 불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대애틀랜타한인목사회, 김근태 회장-신윤일 부회장 선출

임시총회 열고 전 회장-부회장 사표 처리, 신임임원 선출

대애틀랜타한인목사회가 지난 19일(월) 임시총회를 열고 김근태 신임회장(SC 새소망장로교회)과 신윤일 신임부회장(실로암한인교회)을 선출했다.

이번 임원선출은 업무습 전 회장과 최선준 전 부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임시총회에 모인 회원들은 공식이 된 회장직에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보다는 중경회장 중 한 명이 남은 임기를 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데에 뜻을 모아 이 같은 상황을 결정했다.

이에 회장 후보에는 김근태 중경회장과 홍연표 중경회장이 추천돼 김근태 중경회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 후보에는 신윤일



목사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김근태 회장(왼쪽)과 신윤일 부회장(오른쪽)

목사, 류도형 목사, 신한국 목사가 추천돼 신윤일 목사가 선출됐다.

김 앤더슨 기자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오레곤에서 열린다



과거에 열렸던 서북미 5개 지역 친선 체육대회 단체사진

서북미 지역 목회자들의 친선,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한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 대회’가 올해는 오레곤 목사회 주관으로 오는 7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레곤 블루레이크 리저널 팍(Blue Lake Regional Park 20500 NE Marine Drive Fairview OR 97024)에서 열린다.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는 시애틀, 웨드필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등 워싱턴 주 지역을 비롯해 오레곤과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사역하는 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북미 지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체육대회는 1세 한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1.5세, 2세 한인 목회자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목사회는 이를 통해 1세와 2세 교회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목회, 신학적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5개 지역 체육대회에는 21일 배구 대회 후, 22일(화) 수양회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수양회는 목회자 간담회를 비롯해 각 지역 목사회에서 준비한 오레곤 관광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축성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찬양)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물)

EM예배 오전 10:00 (FC제물)  
오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언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3부 오전 9:00  
4부 오전 10:3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9:00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축성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성령학교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 성령학교 오후 7:30  
금요 성령학교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통일국가의 법 제정과 비전, 교회가 먼저 제시해야”

##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발표



이종윤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박사)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반도 자유·정의·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제45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경적·신학적 입장’, ‘정치적·국제적 입장’, ‘사회적·군사적 입장’ 등 세 가지 소주제에서 각각 이종윤·김영한(기독교학술원 원장) 박사, 류우익(사단법인 통일생각 이사장)·이정훈(연세대 교수) 박사,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박용욱(고신대 석좌교수) 박사가 발표했다.

### 성경적·신학적 입장

먼저 이종윤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의 분단 역사에서 찾았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아히아 자신이 옷을 찢는 행위로 남북 분열을 상징적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에 대한 계시 역시 상징적으로 주어진다”며 “바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겔 37:16-22)이다. 이 예언 속에 나타난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며 “즉 여호와께서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본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짝’으로서 동일한 막대기, 곧 한 족속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에 의하면 통일의 주체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성육신하신 분

도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러므로 자유와 정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 이뤄진다. 한반도 통일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영한 박사도 “한국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이의 협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며 “한국교회의 신앙과 사랑, 나눔은 체제와 분단을 초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독교회가 분단된 동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같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평양에 무너진 예배당이 재건되어 자유로운 예배와 찬양이 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위해 식량과 동포애적 마음을 전달하는 일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특히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의 지름길은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을 오가는 11~13만여명의 조선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번영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주인이다. 아무리 한국이 통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무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적·국제적 입장

류우익 박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스스로 그 위원장을 맡기로 함으로써, 통치 차원에서 통일 의지를 국내외에 확고히 천명했다”며 “통일 준비는 시작했다. 이제는 이 시작을 큰 흐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실천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통일준비는 남북관계라는 일의 특수한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지만 민간이 함께해야 효과가 난다. 온 국민이 협력해야 분의가 살아나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관이 함께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결집시키는 일이다. 통일기금을 모으는 일도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시켜 전반적 통일준비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통일준비는 우리 국민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국민을 단합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박사는 “결국 독일통일 사례만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다. 그러나 동독과 같이 북한에서의 민주혁명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핵 협박에 의존하며 온갖 인권탄압을 일삼는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개입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인식 속에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G2 국가의 위상에 맞게 합리적이고 책임이 있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북한의 상황 역시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우리도 북한의 민주화를 확고하게 촉구해야 한다. 그레아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사회적·군사적 입장

손봉호 박사는 “한국사회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통일 시대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층이 통일에 무관심한 것은 통일 추진에 큰 문제일 수 있다”며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세계화가 이뤄지고 우리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게 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박사는 “그런데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다. 적어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북한 상황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범죄라 할 수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과 굶주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 개신교에게 개혁과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다.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갈등은 교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들이므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용욱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가령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전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 국가승계 문제, 북한군 해체 및 통합 문제, 핵무기 등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 대규모 난민대책 문제 등 실로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 신학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켰나

##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웨슬리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박사)와 한국웨슬리학회(회장 임승안 박사)가 공동으로 웨슬리 회심 276주년 기념 및 제5회 종교개혁신학 학술대회를 ‘종교개혁과 존 웨슬리: 종교개혁의 다양성’을 주제로 지난 17일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 우석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공동학술대회는 1부 경건회 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오전에는 김영택 박사(성결대)가 ‘종교개혁 신학의 창조적 종합으로서의 웨슬리 신학’, 이은재 박사(감신대)가 ‘삶의 규칙: 존 웨슬리에 게서 경건을 배우다’, 장기영 박사(서울신대)가 ‘자유와 노예의지, 그 분기점으로서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등 웨슬리 학자들이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영택 박사는 먼저 ‘웨슬리 이전의 모든 신학은 웨슬리에게로 흘러 들어갔고, 웨슬리 이후의 모든 신학은 웨슬리로부터 흘러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비평적으로 연구·수용하여 자신의 신학적 틀 안에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통합·종합하여 목회현장 가운데 실천적 혹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웨슬리가 기독교 신학의 창조적 종합자로서 그 이전의 신학을 종합하여 후대의 신학을 위한 토대를 형성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웨슬리 후에도 그가 창립한 감리교회 신학이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성결교회와 오순절뿐 아니라, 해방신학·민중신학과 기독교윤리학, 심지어 에큐메니칼과 여성신학에서도 웨슬리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웨슬리는 그 목적과 의도에 있어 ‘대중적 신학자(folk theologian)’였고, 웨슬리 신학은 성경에서 출발하여 교회와 목회 현장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신학방법론은 성서를 강조한 종교개혁 신학과 전통·이성·경험을 중요시했던 신학적 흐름들과의 창조적 종합을 시도하면서, 종교개혁 신학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해 현대 신학자들에게까지 유용하고 모범적인 방법론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웨슬리 신학의 중심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이는 은총과 성결이라는 웨슬리의 구원론적 주요 주제 외에도, 인간론·기독론·교회론·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개념이다. 그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의 해석적 틀 안에서 구원론의 주제들을 통합하며 창조적으로 종합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영 박사는 루터와 웨슬리 신학의 비교를 통해 웨슬리의 선행은총론에 대해 설명했다. 장 박사는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신 중심적 구원론에서 전적으로 일치했으나,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와 인간 역할의 관계에 대해 각각 노예의지와 자유의지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핵심 사상인 웨슬리의 선행은총론 연구를 통해, 웨슬리가 자주 펠라기우스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데 반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박사는 “선행은총은 개인의 응답보다 우선 하나님 은혜의 주도권이고, 사람들의 후속적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은혜”라며 “이처럼 노예의지론이 루터의 신학체계에서 갖는 역할과 비슷한 정도로, 웨슬리 신학체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선행은총론”이라고 정리했다.

장 박사는 “신자의 율법의 행위와 사랑, 선행, 나아가 교회의 복음 전도와 신자의 양육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펠라기우스적 자신감이 아니라, 루터가 강조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신뢰”라면서 “선행은총 교리는 웨슬리 신학이 펠라기우스주의를 피하고 전통적 원죄 이해를 가지면서도 예정이나 불가항력적 은혜, 유기와 같은 운명론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및 빵 주문시 할인해 드립니다”

operahousebakery@gmail.com  
T. (213)384-1999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웨딩케익 및 단체주문 환영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한국 30만병 판매, 미국 출시 기념

1병 \$76 + tax **SALE**

3병 \$200 + tax

6병 \$372 + tax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 당뇨병 치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했다. 송문기 박사팀은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를 개발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또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 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 2형 당뇨환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운동부족,과음,흡연, 영양 불균형 등으로 아연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증상을 보입니다.

### 당뇨발병의 근본 원리와 아연과의 관계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로 고혈당 발생 지속되면 당뇨로 진행되고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위해서는 아연 보충이 필수적이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혈당 발생 지속되면 당뇨로 진행된다.인슐린 저항성 발생 원리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췌장베타세포에서 이를 감지하여 인슐린이 분비되고 근육 세포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과 결합을 거부함으로써 포도당이 근육 세포 내 흡수되지 못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가 중요한데, 인슐린 기능저하는 아연 결핍이 주된 요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세포속의 인슐린 수용체의 활동 저하 및 수용체 부족으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여 발생한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 100% 천연성분의 당뇨원인 개선제 프로지

프로지(PRO-Z) 주성분은 소의 전립선추출물질(bovine prostate extract)과 아연(zinc)으로, 소의 전립선추출물질이 체내 아연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당뇨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solution이다. 아연(Zinc)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저항성에 관여하는 IDE의 주요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아연결핍 증상을 보이는 대다수 당뇨환자에게 소의 전립선 추출물질과 아연을 함께 제공하여 아연의 체내흡수 증가를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당뇨 관련 증상의 개선하는 방식이다.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 프로지 효능 사례

- 김OO 장로 (당뇨 10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3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6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이 OO 집사 (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고박고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중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2)

## 1)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יהוה)

그런데 수7:13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면 서부터는 이 말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공식 명칭인 것처럼 자주 사용된다. 특히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에 “만군”이란 말이 덧붙여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웨”란 말도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그러하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호칭이 예레미야서 외에도 습2:5; 대하17:24 등에 나온다.

그런가 하면 삼하7:26, 27과 렘38:17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웨”라는 보다 긴 명칭도 등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생략되고 “만군의 하나님 야웨”란 말도 나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란 말까지 생략하여 단순히 “만군의 야웨”라는 말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사42:8에는 “나는 야웨니 이는 내 이름이라”라는 말이 나오고 사43:11에는 “나는 야웨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만군의 야웨는 그분의 이름이다”라는 말과 함께, “만군의 하나님 야웨는 그분의 이름이다” 그리고 “임금이신 만군의 야웨는 그분의 이름이다”도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이름은 야웨이다”(렘16:21)라고 하시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분의 이름은 야웨이다”(암5:8; 9:6)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당신의 이름이 야웨이십니다”(시83:18)라고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사49:26에는 “나는 너의 구원자 야웨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렘32:17에는 “당신은 주 야웨이십니다”란 말이 나온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그리고 그에 첨가된 말들은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상29:10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야웨”라고 불렀다. 그리고 렘23:36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웨 우리의 하나님”이란 호칭이 등장하고, 렘32:27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모든 육신의 하나님 야웨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온다. 수식어가 하나씩 더 첨가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라는 사실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반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러 “야웨”라 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웨”란 호칭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야웨”란 명

칭이 “엘로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예는 특히 에스겔서에 많이 나온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2장과 3장에서는 “야웨”와 “엘로힘”이 나란히 등장한다. 그러나 4:26에 “야웨”란 명칭이 단독으로 쓰이면 서부터는 “야웨”와 “엘로힘”이란 명칭이 때에 따라서는 함께 쓰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쓰이게 된다.

## 2) 문제점들

출6:3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웨(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창4:26에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2:4에서 시작하여 이 호칭이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 번 쓰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독일의 구약학자 슈미트(Schmidt) 그리고 최근에 서거한 역시 독일 구약학자 프로이스(Preuss)에 의하면 미디안 땅에 거주했던 켈 족속(Kenites)이 야웨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데, 이 켈 족속은 바로 가인의 후예이다.

이 켈 족속은 모세의 처가가 속했던 족속이다. 그리고 켈 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일부이다. 올브라이트에 의하면 켈 족속이란 말은 구리장색인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의 말이 옳다면 이 켈 족속의 본업은 목축업이 아니라 구리공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구리장색인이 아니라 양을 길렀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켈 족속이 가인의 후예라는 견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견해는 가인의 후예들이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남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노아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는 조화를 이루기 힘든 전제이다.

출2:16; 3:1에는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뒤에 그가 야웨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서 제사를 지낸 것을 보면 그가 “야웨”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출18:11-2). 키뇽고(Kinyongo)라는 불란서 학자는 출18:11에서 모세의 장인이 한 일은 제사드릴 물건을 가져온 것이지 제사를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드린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일 그의 말대로 이드로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누가 드렸는가? 당연히 이드로가 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과 장로들이 그에게로 와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저명한 고대 유대사가인 비커만(Bickerman)은 이드로가 “야웨”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만일 이드로가 우상들을 섬겼거나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다면 그가 “야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출2:18에는 “르우엘”로, 4:18에는 “이드로”로, 그리고 민10:29; 사4:11에는 “호람”으로 되어있는데, 이 셋은 동일 인입에 틀림없다.

만일 켈족속이 가인의 후예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아우를 죽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예들은 “야웨” 신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허락하신 셋의 후손들은 “야웨” 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창14:18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멜기세덱은 어느 족속에 속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디에서도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슈미트와 프로이스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성경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의 조상들 즉 셋의 후손들은 “야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나라”라고 창 15:7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즉 “야웨”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고(12:8; 13:4), 그 후에도 하나님을 “야웨”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다(창21:33).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하

나님을 “야웨”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창26:25; 28:16),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야웨”라고 말씀하셨다(창28:13). 그런가 하면 심지어 라반도 아브라함의 하인을 처음 대할 때 “야웨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한다(창24:31). 그리고 발람뿐만 아니라(민 22:8) 심지어 발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란 것을 알고 있다(민24:11,23).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란 것을 알았는가? 후에 불렛셋 인들도 하나님의 법계를 “야웨의 법계”(아론 야웨: יהוה יהוה)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한 시79:6과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모세5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들이 후대에 이르러 편집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체계화한 사람은 독일 구약학자인 벨하우젠(J. Wellhausen, 1844-1918)인데 그에 의하면 모세5경이 4개의 문서들, 즉 야웨 문서(Yawehistic source), 엘로힘 문서(Elohistic source), 신명 기적 문서(Deuteronomic source), 그리고 사제적 문서(Priestly source)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 이러한 견해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소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비단 자유주의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보수주의주의 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 5경이 후에 편집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편집은 모세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야웨”란 명칭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서로 다른 문서들의 결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 또는 편집설(Redactional Hypothesis)은 19세기 구약학자 벨하우젠이 처음에 1878년에 출판된 그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Geschichte Israels)에서 그리고 이 책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1883년에 출판된 이스라엘 역사서언(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에 발표한 이래로 약 10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에 이 학설은 한편으로는 궁켈(Hermann Gunkel, 1862-1932), 모빙켈(Sigmund Mowinkel, 1884-1966), 폰 라트(Gerhard von Rad, 1901-71), 그리고 노트(Martin

Noth, 1902-1968) 등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아직은 벨하우젠의 견해와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실정이다.

오늘날에도 벨하우젠과 그 이후의 학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모세5경이 네 개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편집되었다는 설과 모세가 쓴 것이 후대에 보충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지배적이다.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서설에 있어서의 문제는 “야웨”와 “엘로힘”이 동시에 쓰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세 저작설의 문제는 왜 일관되게 “엘로힘”과 “야웨”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가 맞건간에 많은 경우에 “야웨”란 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라반이나 발람 또는 발락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웨”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아마도 이들은 “엘”이나 “엘로힘”과 같은 보통명사를 사용하였는데, 후에 편집자가 이를 “야웨”로 바꿔 쓴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발람은 그의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야웨”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삼상 5장과 삼하 6장에서는 법계가 “하나님의 법계”(아론 엘로힘; אהרן יהוה)라고 불리기도 하고 “야웨의 법계”(아론 야웨; יהוה יהו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야웨”와 “엘로힘”이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야웨”란 단어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웨”가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인 경우는 비단 사무엘상하와 같은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책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예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들 중의 하나인 역대상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역대상 15장에는 “하나님의 법계”와 “야웨의 법계”라는 말이 아무런 구별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역대하 23-24장, 그리고 31장에서는 “야웨의 집”(베이트 야웨; בית יהוה)과 “하나님의 집”(베이트 엘로힘; בית אלהים)이란 말이 번갈아 나온다. 또한 사37: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에서 “주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의 뜻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 <계속>

## 주안에교회

# 세리토스채플이 이전합니다

6월 1일(주일)부터 Freedom Christian Center에서 목요영성집회와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주소: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예교회 ICC**

예배 안내: 세리토스 채플

주일 1부 / 오전 8:00  
주일 2부 / 오전 10:00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예배 안내: 벨리 채플

주일 1부 / 오전 10:00  
주일 2부 / 오전 11:45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교회 안내: 주안에 교회

Tel: (818) 363-5887  
Fax: (818) 368-9883  
Web: in-christcc.org

**새 채플 오시는 길 ::**

# 복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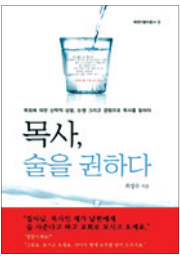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목사, 술을 권하다

최성수 | 예언커뮤니케이션 | 287쪽

목회자이자 칼럼니스트, 신학교 강사인 저자의 에세이. 목사의 본질을 드러내는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한다. 저자는 앞의 질문이 목사에게, 목회 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자 논쟁의 결과라고 말한다.



#### 성경 속의 가정

리처드헤스퍼저 | 미션월드라이브러리 | 208쪽

선업권을 지우고, 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의 생생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펼쳐놓는다.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정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했다. 성경 속 가정은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본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

존 드레서 | 생명의말씀사 | 184쪽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다양한 테스트와 토의 문제를 통해 자녀 양육 태도를 부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교사, 입시를 넘다

홍세화, 송인수 외 | 우리교육 | 372쪽

왜곡된 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교사 등대지기 학교' 일곱 강좌를 묶었다. 각 분야 전문가 7인이 학벌사회, 선진국의 학교교육, 미래사회 변화, 진학지도, 자유의 교육, 사교육 제로의 해답, 새로운 교사 운동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고도 날카롭게 이야기한다.



## REVIEW

### 다음 세대 청소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소망

#### 교회학교를 위한 청소년 '특별 컨설팅' < 십대 사역 세우기 >

교회학교의 쇠퇴와 영향력 약화는 그야말로 '진부한 우려'가 됐다. 하지만 진단이나 비판만 무성할 뿐, 뾰족한 해결책이나 희망적인 모델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팻머스문화선교회, 소명교육개발원, 브리지인팩트사역원,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팀 등 다음 세대(특히 청소년) 사역단체 다섯 곳에서 지역 중소형교회 청소년 사역을 위한 '특별 컨설팅'에 나섰다.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무너져 가는 지역교회 청소년 부서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십대 사역 세우기>는 이 다섯 사역단체 전문사역자들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10대의 신앙과 삶

에서 다뤄야 할 필수 주제들을 골라 탐색한 결과물이다. 책에 '세우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건축을 할 때 여러 기초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으고 균형을 맞춰야 하듯, 흔들리는 10대 사역을 강력하고 견고하게 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지역교회의 10대 사역을 새로운 도약과 내적 충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그 열쇠는 '교회와 교회,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교회와 선교단체'의 네트워크와 연합 사역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각종 세미나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론이나 활동자

료 대신, '청소년 사역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말하고 있다. 방법을 갈구하는 교회학교 교사나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정신'과 '조심'을 주문한 것. 뭔가 강력한 '한 방'을 기대해선 안 되고, 농부처럼 사시사철 무지하게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며 김을 메고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게 바로 오늘날 다음 세대 사역의 토양임을 말해준다.

그들은 '도대체 10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눠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눠 줄 수 있는가?', '왜 그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나눠야 하는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 우리는 어떤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그 이전에 어



십대 사역 세우기 팻머스문화선교회 외 예수전도단 | 256쪽

무지에서 탈출해야 하며, 10대를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필요하다.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독교세계관이 절실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각 단체들이 강조하는 사역들이 이 문장들 속에 모두 들어 있다. 팻머스는 '10대를 위한 예배와 설교 기획', 소명교육개발원은 '성경적 소명과 비전을 찾아나서는 여정', 브리지는 '10대를 품고 섬기는 교사', 세계관교육센터는 '10대를 위한 체계적인 기독교세계관 교육', 예전단은 '온 세상을 무대 삼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웃리치'에 대해 각각 이야기한다.

이대용 기자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빼앗겨 허리가 아프신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없이!

####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최고의 자녀 양육법은 바로 '긍정적인 대화'

<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9가지 사랑의 언어 >

《부부, 행복한 동행》,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등 가정사역 관련 강의와 저술활동에 앞장서 온 김병태 목사(성전교회)가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9가지 사랑의 언어(이상 브니엘)》를 펴냈다.

저자는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 둘밖에 기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자녀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 시행착오를 너그럽게 봐주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만들 수 있는 사회 변수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

준비되지 않은 서투른 부모가 ‘문제 자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부모 역할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 둘만 기르다 보니 과잉 사랑으로 병들게 하고, 지성 교육에만 신경쓰다 보니 인성이 강그러져 버렸다. 이렇게 역기능 가정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몰린 아이들은 우후죽순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저자는 “다들 그렇듯,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 역시 준비 없이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결혼생활을 어떻게 만드는 북병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었다”며 “부부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서로 조율하면서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자녀 양육은 정말 만만치 않았고 지난 24년간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교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목회자 자녀들’이다 보니, 세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목회관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그는 고민 끝에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길을 찾아나갔다.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때로는 아이들이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궤도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9가지 사랑의 언어 | 김병태 브니엘 | 224쪽

를 벗어날 때조차, 격해지는 감정을 추스르면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양육법이 ‘대화’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니 벌써 세 아이는 모두 대학생이 됐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걸어온 자녀 양육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이론편이 아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총서도 아니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깊이를 찾기 위한 책도 아니다. 그러기에 읽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한 평범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기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는 특히 대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의 여러 부모들이 자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것이 ‘9가지 사랑의 언어’이다.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단어들이고, 가정 바깥에서는 감히 (오글거리더라도) 듣기 힘든 말들이다. 각박하고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언어들이다.

“누가 뭐래도, 난 내게 가장 소중한 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네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고마워!”, “엄청 기대가 된다. 난 할 수 있어!”, “정말 잘했어.”, “오늘 뭐했어? 힘든 일은 없었어?”,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믿어!”,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공부도 좋지

만, 더 소중한 게 있어!”

김 목사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로서 마음에 담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권한다. 사랑은 감추어 뒤편은 안 되는 보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 할수록 좋은 보물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메마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들들 볶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왜 아끼는지 모르겠다. 듣고 또 들어도 싫지 않은 말 아닌가? 헤룰수족 좋은 말 아닌가?”

김병태 목사는 이외에도 《관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 습관 길들이기》,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 《희망과 행복을 만드는 회복 레시피》, 《흔들리는 그대에게》 등과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의 제2 시리즈 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이대웅 기자

“진심으로 돌보는 한 명만 있으면, 아이는 변합니다”

‘원 케어링 어덜트’ 되기 < 교실 속 자존감 >

《땅에서 자라는 하늘 자녀》의 저자 박경이 사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알파벳을 가르치기 전부터 ‘너는 특별하다’라며 자존감부터 가르친다고 한다. 8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최근 《교실 속 자존감》을 펴낸 조세핀 김 허버드대 교수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삶으로 체험하고 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동양 아이가 많지 않던 시절, 영어 한 마디 못하던 그녀는 학교에서 첫 학기에 미술을 제외한 전 과목 학점이 F였다. “영어는 못하지만, F가 ‘Fantastic’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건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후 스스로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망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변화된 건 4학년 때 만난 한 교사 덕분이었다. 그 교사는 그녀를 ‘동양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한 아이’로 보고 그 내면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 선생님은 제게 자기 자신을 투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과 노력,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 교사는 쉬는 시간마다 영한사전과 온갖 그림들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교실 속 자존감 조세핀 김 비전과리더십 | 248쪽

하루는 30-40분간 낱말 퀴즈 총 10문제를 풀게 한 다음, 그녀가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한 행동을 했다. “낱말 퀴즈책 맨 위에 ‘100’과 ‘Wonderful!’을 아주 크게 쓰시고는 제가 그때까지 본 미소 중에 가장 큰 미소를 지어 보이신 거예요. 마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 같은 힘을 가진 미소였지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고, 학교에서도 손을 번쩍 들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아이로

바뀌었다. 이후 리버티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대학원에서 전문상담을 공부하고, 버지니아주립대에서 상담가 교육 및 감수로 박사학위를, 허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허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로서 정신건강 상담사, 대학교 내 폭력문제 전문가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조승희 총기난사 사건 후 여러 언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08년 EBS TV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자아존중감》 편에 출연, 자존감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건 미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결론 내릴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신간 《교실 속 자존감》에서 조세핀 김 교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당시 제 선생님은 말 못하는 동양인 어린아이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도 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상관 없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엉망이고 학부모가 아무리 꼰통이어도,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 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원 케어링 어덜트(one caring adult)’라고 하는데, 그 역할의 ‘0순위’가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 한 아이에게 ‘원 케어링 어덜트’가 되어 주겠다고 결심해 주세요. 누군가가 희망의 눈으로 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교실 속 자존감》에서 저자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자살, 자해 등 다양한 증상들을 소개하고, 자존감이 무엇이며 학교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설명한다. 또 조

희·종례 10분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교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법,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신뢰를 쌓는 법, 상대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왕따를 근절하는 게임 등 교실 속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의 상처를 보듬는 다양한 방법을 들려준다.

나중에 그녀는 그 4학년 때 교사와 연락이 닿았고,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 교사는 “지난 35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 등을 위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비단 학교나 유치원 교사 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도 새길 만한 이야기들이다. 교사는 위대하다. 교사의 시선이 학생을 살리기 때문이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혈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의 원인  
이전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복원해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세제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당뇨병 예방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췌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췌장 기능을 개선시키면 췌장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낮추어 줍니다.

자극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자극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스페셜 할인  
2병 \$120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디자인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 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1.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2.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3.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4.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한 합병증을 억제해 줌
5.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전문의 추천 1  
한태성 박사(67세) 당뇨환자  
갑자기 체중이 20lbs나 빠지면서 심한 갈증과 피곤이 동반되어서 작년 9월 동의당뇨환이 생기자마자 복용하고 실로암 한의원 찾았다. 공복당수치 463이 복용 3일 후 237로 내려갔고 2주후에는 89로 떨어졌으며 피곤과 갈증도 없어져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너무도 놀라운 효과였다. 2개월 복용 후 약을 완전히 끊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원장에게도 고맙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문의 추천 2  
은퇴하신 함옥사님 72세 당뇨병 35년  
실로암 한의원에 오셨을 때 증상은 매일 4회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신장합병증으로 주 2회 투석을 하였다. 동의당뇨환을 2개월 복용 하였는데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1개월 더 복용한 후 신장투석을 안하게 되고 동의당뇨환을 끊은지 1년이 되었음에도 재발이 없다. 동의당뇨환이 기적을 낳은 것이다. 할렘투어!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 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 폐섬유화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2014 SONATA GLS ALL IN STOCK @ \$22,425 Lease for \$99 PLUS TAX \$36 MONTHS

2014 SANTA FE SPORT 2.4 ALL IN STOCK @ 26,115 Lease for \$199 PLUS TAX \$36 MONTHS

2013 GENESIS COUPE 2.0T M/T ALL IN STOCK @ 25,490 UP TO \$5,000 OFF

2013 GENESIS Sedan 3.8 풀옵션 ALL IN STOCK @ 44,385 UP TO \$10,000 OFF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any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드림교회 유기성 목사 초청 특별 부흥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포기과 고난

패서디나에 위치한 드림교회(이성현 목사)에서 유기성 목사(한국 선한목자교회 담임) 초청 부흥회가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열렸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요15:5)을 주제로 열린 부흥회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부유하십니까?”,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 ‘아골 골짜기 빈 들에도’ 찬양을 부르지 못하다

17일 오후 8시에 열린 부흥회에서 유기성 목사는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에 대해 전했다. 그는 신학대 졸업반 때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주님이 ‘아골 골짜기 빈 들에도’ 정말 가겠는가라 물으면 ‘그렇다’고 할 자신이 없었다. 부모님이 저를 목사라 키우겠다고 서원하셨고, 늘 목사님들이 안수하시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큰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셔서 신학대를 졸업하면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생각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인지 몰랐다.”

## 셋째 하늘 체험하면 세상은 무의

그는 바울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던 비결에 대해 전했다.

“저는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교리로만 알면 이게 해결 안 된다. 고난을 기뻐할, 순교당하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상상 못한 변화,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빌3:7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돈, 명예, 권세.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의 목적이 뭐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해 보자.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봤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비밀을 알았다. 이를 다 알고 나니,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접받고 편하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다.”

## 고난을 꺼리는 이유는?

이어서 고난을 축복으로,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지식·교리로만 아는 자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는 어떤가? 배설물을 끌어안는다. 심지어 남의 배설물까지 노린

다. 우리가 꼭 그 꼴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는 천국이 있음과 재림을 믿었으나, 자신 안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작농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쟁이 나서 급하게 누군가 물어 봤을 것이다. 농부는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 땅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에 기쁨이 넘친다. 주님이 내게 ‘너도 그렇게 기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데서 믿음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 “땅 끝에서 죽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진짜 열린 것이다. 믿음이라고 다 감지 않다. 어떤 이는 순교하지 않게 해 달라 기도한다. 북한에서는 순교할 각오로 믿는데, 남한에는 축복받으려고 믿는 이들이 많다.”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목사님이 아들을 찾아가다 마음이 무너졌다. 아들이 전기도, 식수도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상의도 못 입고,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 그곳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잠을 못자고 기도했다. ‘이런 오지에 아들이 아니라 제가 와야 하는데 앞길에 창창한 아들을 여기에 보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내게 하십니까? 괴로워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임했다. 그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급하게 옆에 있던 박스 조각에 적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고 왔다. 한참이 지나 그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제가 뭐라고 써 주시고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는 잊고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있었다. 그 조각에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은 그 쪽지를 하나님께 주신 부름이라 여겼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이 삶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 믿음의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말했다.

“왜 우리는 안되나?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안 됐다.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치 100만원과 1억원 중 선택해야 할 때 아무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다. 배설물같이 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 사람에게, ‘세상을 포기하라’한다면 이걸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처럼 천국 소망이 생기면 사망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불평, 불만이 사라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미국에 사는 게 한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걸 의미했지만, 서글픈 삶을 사는 자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하는 생각이 싹 바뀐다.”

##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다니’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끈 적이 있다. 그 교회에서 부흥강사의 숙소로 사용하는 호텔에 묵었는데 그런 좋은 호텔은 처음이라 황홀했다. 잠을 자기도 아까웠다.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다니’란 생각을 하던 순간 번개같은 깨달음이 임했다. 뜬금없이 6.25 때 평양 사동교회 담임을 하다 순교하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상급이구나’ 할아버지의 고통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 ‘이렇게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날 호텔 바다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세상에서 호강만 누리며 살

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님을 그때까지 몰랐다.”

“육도 발 목회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 반대로 돌짜 발 목회는 저주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돌짜 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렸다. 대학 졸업 때 하나님께 대답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12년 만에 대답을 받아내셨다.”

##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한 용기 하나님은 그 포기를 축복으로

흔한 석사학위도, 큰 교회 목사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박사 학위도 그에게 없다. 유기성 목사는 “공부 못해 신학대 갔다”는 말을 듣기 싫어 공부를 열심히 해 신학대를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광림교회 부목사로 섬기며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목회에 충실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던 때 하나님은 그에게 뜻밖의 해답을 주셨다. “석사학위를 포기해. 그거 포기하면 문제가 간단하잖아.”

“제가 포기 못한 게 있었다. 공부였다.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느 대학원 졸업했냐고 물으면 신대원도 졸업 못한 목사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게 끔찍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했다.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온 몸에서 열이 펴릴 났다. 금요일이었는데 기도회도 못가고 이불 위에 무릎 꿇었다. 기도도 안 나왔다. 간신히 ‘주어’하는데 내 입에서 ‘석사학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 고백을 하고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죽는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울고는 열이 내렸다. 마음이 너무 편하고 주님이 ‘너 잘 했다’ 하시는데 것 같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6개월 후 부산 제일교회로부터 청빙 의뢰를 받았다. 부임 후 알고 보니 그 교회의 담임목사 조건은 ‘대학원 졸업 이상, 나이 40세 이상’이었다. 선한목자교회 부임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청빙한 장로는 유 목사에게 “대학원도 졸업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게 오히려 축복일 때가 있다”며 이 세상이 전부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 달라고,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흥회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드림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였다.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로계 종사자( 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ALL NEW 2015 GENESIS SEDAN**

새로운 디자인의 2015년형 제네시스 세단이 입고되었습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딜러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게 문의하세요-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sup>+TAX</sup>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2,9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SAVE UP TO **\$15,000**

**PURCHASE FOR AS LOW AS \$45,170<sup>+FEES</sup>**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스티브 장 626.513.4006 | 찰리 정 626.513.4981 | 저스틴 킴 626.513.4580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